

LG화학, 임원급 연구위원 대거 발탁

분야별 연구개발기능 강화 위해 ... R&D 인재 500여명 채용 계획도

LG화학(대표 김반석)이 역대 최대인원의 연구·전문위원을 발탁했다.

LG화학은 “핵심기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탁월한 연구업적으로 원천기술 확보 및 사업성과 창출 등에 공헌한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”며 “2012년에는 역대 최대인 7명을 발탁했다”고 2월27일 발표했다.

LG화학은 2012년 발탁한 7명을 포함해 총 22명의 연구·전문위원을 보유하고 있으며, 연구·전문위원으로 선임되면 임원급 연봉과 활동비 등 획기적인 보상과 처우를 받고 특정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3년 단위로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김반석 LG화학 부회장은 “사업본부별 책임 경영체제에 따라 분야별 R&D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의 연구·전문위원을 뽑았다”며 “최고 수준의 품질로 고객가치를 선도하는 첨단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R&D 전문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또 육근열 LG화학 CHO(최고인사책임자) 부사장은 “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약 500여명의 R&D 인재를 채용할 계획”이라며 “핵심사업에서 차별화된 기술 및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박차를 가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◇연구위원 ▲김노마 CRD연구소 부장 ▲김영민 석유화학연구소 부장 ▲이충훈 석유화학연구소 부장 ▲나균일 정보전자소재연구소 부장 ▲전성호 정보전자소재연구소 부장 ▲정근창 배터리연구소 부장 ◇전문위원 ▲환경·에너지·기후 분야 박인 부장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2/27>